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미니 프로젝트

기획 및 분석: 이순영 (트렌드 전문가)
김세은 (트렌드 리서처)

취재 및 사진/비주얼 맵핑: 김세은



-제3편-

Sceno-street

세노 스트리트

Sceno-street

신사동 가로수길<Shinsa dong/Garosugil>



5 focus in Garosugil

Main: Sceno street

Sub-1: Sceno-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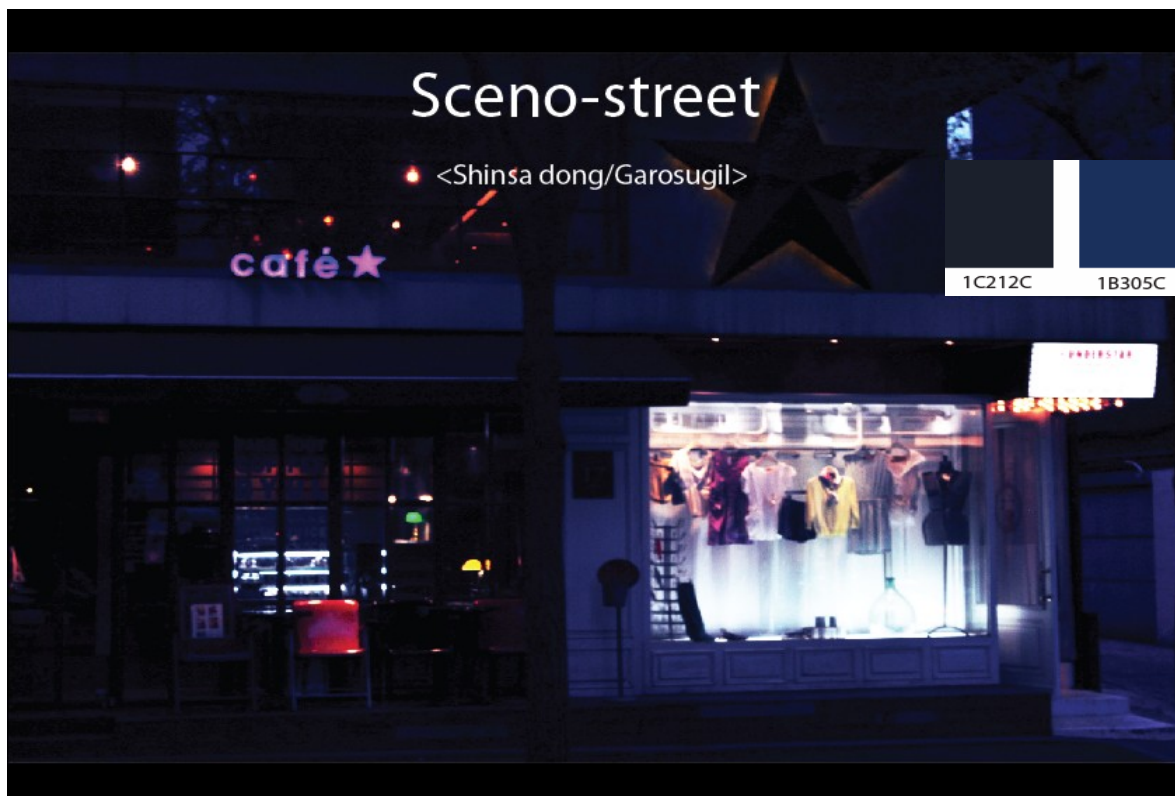
Sub-2: Sceno-sumer

Sub-3: Sceno-bling

Sub-4: Sceno-retro

세노-스트리트 Sceno-street

세노 스트리트에서 세노'sceno'란 '세노그래피 scenography' 즉 배경이라는 명사의 줄임말로 거리가 배경, 무대가 되는 신사동 가로수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위한 키워드로 제안한다. 가로수길이 명소가 된 이유는 가로수가 아닌 아가자기 여러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 거리 속 풍경 때문이다. 어느 나라 어느 시기에 본 듯한 다양한 종류의 샵, 디스플레이, 소품, 음식 등... 모든 것들이 작은 공간 속에 오밀조밀 밀집되어 무국적인 코드를 만들어내어 서로 소통하는 <다운사이징 애티튜드 Downsizing attitude>가 증폭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한국 입맛에 맞게 튜닝되고 필터링(Filtering)되어 새롭고 빠르게 재창조 되고 있다.



낮과 밤이 변화하는 ‘칼레이도스코픽 세노-스트리트’ (Kaleidoscopic Sceno-street)

낮 동안의 가로수 길 > 광고, 디자인에이전트, 스튜디오, 잡지사들이 밀집되어있는 평일이면 신사동 주변은 일하는 사람들로 분주하며, 신사동과 압구정동을 잇는 브릿지 역할로 택시나 쿵 오토바이들이 골목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고 간다. 상업지역,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진 풍경 중 하나. 최근 몇 년 사이 붐을 이뤘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영업자들이 신사동 가로수길로 모인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항상 트렌디한 제품을 내놓는다는 패스트 패션의 최전방에 있는 그들은 신사동 가로수길을 그들의 무대로 바라 보고 있는 것이다.

특별한 연출 없이도 그곳에 가면 언제나 준비되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독특한 배경들이 방문자를 기다린다. 전체 거리가 누군가의 연출에 의해 조화된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취향에 맞는 개성을 내세우는 불협화음과 같은 dissonance 무드가 화려하고 무국적인 무대를 자연스럽게 연출한다.

밤의 가로수길 > 거기를 지나다 보면 작은 노천카페에 앉아 거리를 무대 삼아 구경하듯, 그들은 관객이 된 듯한 모습으로 거리와 소통을 즐긴다. 마치 유럽 노천카페 배경과도 비슷한 무대연출이 떠오르는 광경은 좁은 차도와 골목 사이사이 틈새속 무엇 하나 놓일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흥미롭다. 또한,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 그들도 노천카페에 앉아 있는 그들을 의 시선을 구경한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밝은 조명이 켜진 쇼룸에 전시된 편집 습 안에는 각국에서 피킹(Picking)한 다양한 의류와 소품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옆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두움 조명속 아로마 향초가 피워서 어둠 속을 밝히고 있는 와인 바의 독특한 모습이 연출된다. 특히, 밤에만 오픈하는 상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가로수길 만의 밤 문화(나이톨로지:nightology)를 반영하고 있다.

Colors way

전체 칼라는 어둠과 라이팅이 함께 공존하는 칼라로 다크 한 블루 계열을 베이스로 라이팅 칼라로 포인트를 주어 전체적으로 무대조명과 같은 연출효과를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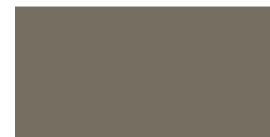
#3669B3



#D57297



#39A784



D8B234



#193631

다른 차원 속 무대 위에서 있는 것 같은 거리 속 연출

가로수 길을 무대로 큰 배경이 되어주는 샵 외관은 다양성을 표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유럽 스타일의 외관 인테리어의 느낌이 강조되며, 핸드 페인팅, 월 페인팅, 우드, 유리 등 각종 다양한 소재사용이 흥미롭다. 월 페인팅(wall painting)의 경우 건물의 벽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미지의 그림을 연결 지어 벽면에 또 하나의 샵의 느낌이 재현되게 한다. 마치 무대 뒷 배경처럼 신사동을 오고 가는 사람들의 사진 속 배경으로 자주 사용되며, 홍보를 위한 그림이 아닌 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의 재미요소로 서로 소통하는 공공 디자인 시설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의 손길에 의해 지어진 것들도 있지만 샵주인에 개별취향에 의해 디자인되어 그 만의 개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인테리어 등장이 가로수 길의 모든 샵 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한다. 시즌마다, 트렌드가 변할때 마다 재빠르게 샵 외관 및 실내 인테리어까지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샵 매니저들의 감각이 뛰어난 곳이다.

Colors way

유럽풍의 외관을 강조하는 전체적 흐름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영료칼라에서 오는 블루와 화이트가 메인으로 등장된다.



에조틱 무드 (Exotic mood)

세계각국에서 모아진 듯한 물건들, 국경과 시대가 허물어진 새로운 코드를 만든다.
한국의 트렌드 세터들이 가장 좋아할만한 아이템은 무엇일까?

인터넷을 통해 세계각국에 대한 정보를 언제든지 시시각각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일반화된 해외여행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거나 문화를 접하고 항상 이동가능한 디지털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 어떠한 아이템이던지 언제나 구입할 수 있으며. 검색할 수 있는 시대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소비자 각자가 MD(머천다이즈: merchandisier)의 시각으로 바잉(buying)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멀티숍(multi shop)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주인의 개인 취향과 시각에 맞춘 세계 각지에서 피킹(picking)한 아이템들을 함께 믹스되어 디스플레이 하여, 색다른 무드와 느낌을 연출하여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또한, 낮과 밤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숍 들도 등장한다.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는 도시 서울, 그 중에서도 신사동 가로수길에는 낮에는 의류와 패션액세서리를 판매하지만 저녁에는 와인이나 세계각국의 맥주를 판매하는 카페로 변신하며, 마치 부엌과 옷장이 함께 공존하는 듯한 이상야릇한 무드를 연출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들은 어느 곳에 과도 똑같지 않고 색다른 것, 유일한 장소는 퍼스널(personal) 코드를 갖는 트렌드 세터들에게 최상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Colors 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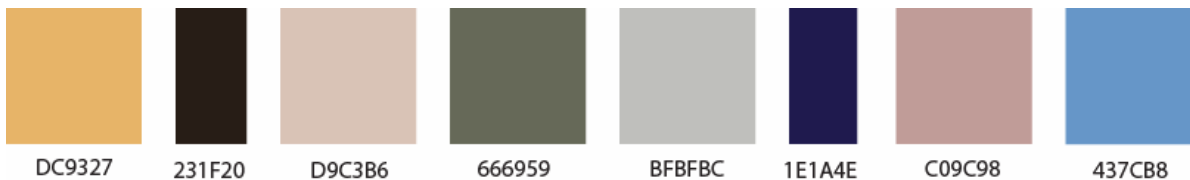
로우(low) 머테리얼에서 오는 콘크리트나 우드 페인팅 칼라 감과 톤 다운된 레드 계열이 포인트 되며, 어둠속을 밝히는 조명이 전체적인 무드를 연출한다.



가로수길 속 블링블링 (bling bling)

블링블링은 최근 국내에서 가장 많이 듣는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 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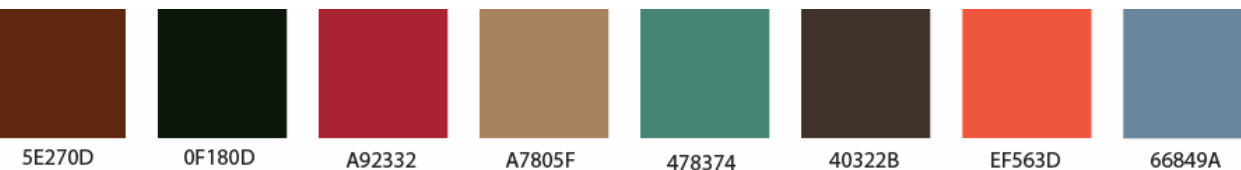
힙합에서 오는 스타일의 룩에서 출발하며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제니퍼 로페즈가 거론되고 있는 키워드로 최근에 국내에선 패션 스타일뿐만 아니라 IT, 모바일에서 부터 아웃도어 거리 속에도 종종 보이고 연출되고 있다. 화려함과 과시적인 느낌의 밤문화에서 출발하는 블링블링에서부터 한국적 블링블링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밤뿐만 아니라 데이라이트(daylight) 블링으로 낮 시간 동안도 간판이나 인테리어 조명 효과로 연출하여, 유럽식의 고풍스러운 전반적인 거리에 활력소로 거리를 생동감 있게 만드는 효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빛의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칼라의 신비로움과 그래픽라인과의 매치 또는 일반적인 원색적인 소재의 매치를 통해 새로움을 어필한다.





Sceno-retro

<Shinsa dong/Garosugil>



Colors way

각 소품에서 나타나는 오래되어 바랜듯한 칼라감등이 전체적으로 연출되며, 있는 그대로의 재질에서 묻어나는 칼라가 동시에 연출된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레트로 (retro) 무드

신사동 가로수길 에는 유럽식이나 최신 식만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매우 한국적이거나 시대나 시기를 알 수 없는 물건 혹은 레트로(Retro)인테리어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오랜 된 70년대 간판이나 유리병들은 지금 현재 거리에서는 찾아 볼 수는 없으나 어느 일정한 장소를 찾아가면 만날 수 있다. 실제로 그 시대에 있던 것들을 수집하여 모아진 곳은 현재 음식점으로 젊은이 들에게 그 시절의 향수를 전하며, 21세기를 살아가며 경험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오랜 여행을 하고 돌아온 듯한 여행용 가방은 빛 바랜 칼라 만큼 오랜 시간을 지나 온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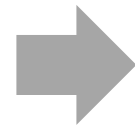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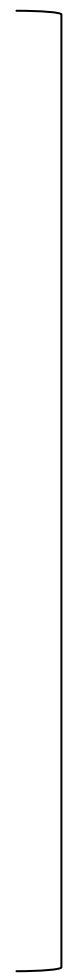
로컬 칼라 파노라마

Local color panorama



지역: 신사동 가로수길
키워드: **Sceno-street**

Sceno street



Sceno-shop



Sceno-sumer Sceno-bling Sceno-retro